

유타에서 실종된 고양이 캘리포니아에서 발견

반쯤 택배 상자에 들어갔다가 105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고양이가 화제이다.

유타주에 살고 있는 캐리 클라크는 지난 10일 반려묘 갈레나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클라크와 가족들은 반려묘를 찾기 위해 집과 동네를 뒤지고 실종 소식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지만, 반려묘를 찾을 수 없었다.

반려묘의 소식이 들린 건 약 6일이 지난 17일이었다. 클라크는 거주지에서 1050km 정도 떨어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있는 한 수의 사로부터 갈레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수의사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직원이 택배 상자 안에서 고양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 잃어버린 반려묘 갈레나와 1050km 떨어진 곳에서 재회한 캐리 클라크. 사진=X(CarrieStevensClark)

테리고 왔으며, 고양이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을 스캔해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상자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주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반송 택배 상자에 들어갔고, 이 상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류창고까지 배송된 것이다.

클라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며 "고양이가 택배 상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클라크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이동해 갈레나와 재회했다. 고양이는 6일 동안 사료와 물을 먹지 못해 약간의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에 출현한 악어 맨손으로 제압한 남성



▲ 거리에 나타난 악어를 제압한 후 마이크 드라기치가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FOX-35 Orlando

한 남성이 대낮에 도로를 활보하는 악어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영상이 화제다.

30대 남성인 마이크 드라기치는 예비역 군인이자 악어 사냥꾼 겸 종합격투기 선수다. 그는 지난달 21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거리에 나타난 길이 2.5m에 달하는 악어를 아무런 장비 없이 포획했다. 이 모습은 근처에 있던 사람이 촬영해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드라기치는 빠르게 움직이던 악어의 등에 올라타 목을 누른다. 화가 난 악어는 입을 벌려 저항했다. 하지만, 드라기치는 악어의 입을 꼭 눌러 땅에 닿도록 했다. 이어 악어의 턱을 들어 올린 후 입에 특수 테이프를 감아 입을 못 열게 했다. 악어를 번쩍든 드라기치는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며 차량에 실어 보냈다.

당시 그는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하키 경기를 관람하던 중 악어 사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기치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악어를 링 위에 있던 상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악어를 맨손으로 제압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식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1살 아기인 줄 알았는데 101세 할머니가



▲ 101살의 퍼트리샤 할머니. 사진=bbc.com

아메리칸항공 예약시스템이 101살 할머니를 1살로 인식하는 오류를 일으키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01세인 퍼트리샤 할머니는 최근 딸과 함께 아메리칸항공을 타고 시카고에서 미시간주 마켓으로 여행을 가다가 1살 아기로 체크했다. 해당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이 퍼트리샤 씨가 태어난 1922년을 인식하지 못해 2022년

생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항공사 직원들은 1살 아기 대신 101세 할머니가 나타나 매우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트리샤 할머니가 아기로 오인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를 예약했지만, 1세 아기로 잘못 입력돼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가 준비되지 않아 낭패를 겪었다.

당시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할머니는 휠체어가 준비되지 않아 "딸이 모든 짐을 들고 1마일을 이동해야 했다"며 이 문제가 어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밝혔다.

퍼트리샤 할머니는 또 "정보기술(IT) 문제로 비행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가을로 예정된 다음 번 여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메리칸항공은 이번 일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Ryan Chang, DPM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특별 진료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각종 보험 취급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